1950-2010
60th Anniversary
WORLD VISION
KOREA

World Vision

예수님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월드비전

목차

World Vision

Part 1. 월드비전과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생명을 치유하고 풍성케 할 때 ..... p. 4-6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와 통전적 변화 ..... p. 8-10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 p. 11-13
고통이 휘몰아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 p. 14-18
가난과 통전적 선교 ..... p. 19-25
교회와 월드비전의 선교동역 모델 ..... p. 26-28

Part 2. 최악의 시기에 일어난 최상의 일들

개요 ..... p. 30-32
월드비전의 정체성 ..... p. 33-42
하나님의 나라와 변화 ..... p. 43-49
월드비전의 선교 ..... p. 50
영적인 사역자 만들기 ..... p. 51-52
교회와 함께하는 월드비전의 역사 ..... p. 53-56
예수 그리스도 증거 ..... p. 57-60
월드비전의 영적유산 ..... p. 61-65

World Vision

Part 1. 월드비전과 하나님의 나라

World Vision

지금은 생명을 치유하고 풍성케 할 때

월드비전 회장 박 종 삼 목사

우리에게 주신 복음(Good News)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류는 그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파멸과 사망의 길을 향해 달리면서 서로 의심하고 헐뜯고 죽이는 '사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의 길을 달려가던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하나님의 나라)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존재' 곧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땅에서 복음이 곧 기쁜 소식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의'진정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탐욕스런 나'를 완전해서 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해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므로 '진정한 회개'는 '지적 동의' 혹은 '관념적 긍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영접하는 결단이자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1) 지금 삶의 현장에서; 2)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3)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4)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를 함께 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안전이나 평요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둡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고 기도하며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World Vision

20세기에 일어난 파순과 죽임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들 중에는 20세기를 위대한 세기로 규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20세기에 이르러 과학과 문명이 놀랍게 발전하고 인류의 복지도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좀 더 길이 살펴보면, 20세기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는 파순과 죽임이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 굶주림, 빈부의 격차, 질병에 대한 방치, 이념과 종교적 대립, 폭력, 마약, 성매매, 소년병 등의 문제 등이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진보는 생명을 살기는 데에도 기여한 바 크지만, 생명을 파손하고 죽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세기에,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2천만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어린이들, 여자들, 그리고 노약자들이었습니다. 20세기의 야만적 파순과 죽임은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자행되었습니다. 그러한 파순과 죽임은 특히 과학기술문명을 소유했던 서방의 국가들에 의하여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순과 죽임의 희생자들은 가난했던 아프리카, 남미, 아세아 등의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파순과 죽임의 현장에서 일어난 성김과 생명손동

20세기에 한반도에서도 무서운 파순과 죽임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입니다. 이렇게 좁은 땅 한반도에서 일어난 3년간의 전쟁으로 군인 250만 명과 민간인 350만 명, 합해서 600 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간신히 죽음을 모면했던 사람들이 겨어야 했던 고통 또한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의 현장에서도 따도는 고아들, 전장에서 남편을 잃은 부인들과 그들의 자식들, 전쟁의 폭력으로 몸의 지체를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성도)를 잃고 방황하던 목회자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위로하며 돌보아 주는 '성김과 생명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성김과 생명지유의 운동'은 '월드비전'(Word Vision)이란 나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파순과 죽임이 있는 곳에서 성김과 생명지유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에 대응하기 위해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인간의 변화, 정의구현,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복음 증거'를 위해 일합니다.

World Vision

책,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간하면서

이 책은 월드비전의 사명과 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역'을 신학적으로 숙고하여 정리한 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월드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 곧 '모든 어린이가 모든 영역에서 풍성케 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숙고하고 정리한 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가난과 선교'를 성경적으로 조명하는 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책이 21세기 지구적 선교에 매진하는 한국교회, 선교기관, 그리고 월드비전의 사역자들에게 조그만 안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천 십년 가을

월드비전 회장 박 종 삼 목사

World Vision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와 통전적 변화

Jesus' Mission & Holistic Transformation

월드비전 선교센터 김희수 목사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돌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 . . . " (요 4:28-30).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팔레스틴 사마리아 땅에 허무의 영에게 매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의 허무에 시달리다 못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던 병든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소외를 당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죄책감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던 수가마을의 그녀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갈하기 위하여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때는 제육시, 햇빛이 강해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일부러 물을 길러 나온 이유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륜(不倫)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동리 사람들이 그녀를 싫어하고 경멸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렇게 고달픈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을 건넵니다.

메시아 예수께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마 12:20) 자비하신 분입니다. 수가 마을을 방문한 그는 한 병든 영혼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녀의 영혼과 몸을 파괴하고 있는 죄의 현실에 마음 아파하셨으며, 이혹고 그녀를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해방과 창조의 주인신 예수

주님은 그녀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요 4:16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수치스런 부분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며 파괴하고 있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에 그녀는 숨김없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요 4:17절)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악을 주님께 숨김없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요 4:18절).

World Vision

주님은 그녀의 고백을 받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용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영적인 시력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바로 자기 앞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인간'(a wretch like me)을 만나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출'에 감전(感電)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출이 임하는 순간, 그녀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a new creation)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a new creation)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화되다

그녀는 '죄의 권세' 곧 '사탄의 권세'(행 26:18)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영적인 해방에 이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방되는 순간, 억압한 욕정을 따르던 옛 사람(old self)이 죽임을 당했고(엡 4:24),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new self)이 태어났습니다(엡 4:25). 그녀의 마음도, 몸도, 태도도 새 것입니다. 그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도 새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도 새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변화된 사람'을 보십시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쓰임 받는 '하나님나라의 사역자'(worker of the Kingdom of God)가 되어 있습니다.

1)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 . " (요 4:28a) :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옛 생활방식을 던져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 . " (요 4:28b) : 그녀에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은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3)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 4:28b-29) :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니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전도자'(Evangelist)의 모습입니다.

4)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 4:30) : 그녀가 전한 복음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그녀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끌렸고,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5)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요 4:31) : 그녀의 간증을 듣고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변화된 사람'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쓰임 받는 '하나님나라의 사역자'가 되어 있는 모습입

니다.

World Vision

6)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 (요 4:40a) : 이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곳에 더 계시면서 하나님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7)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 (요 4:40b) :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시어 그들과 이틀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비림을 당하고 경멸 속에서 살아가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8)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요 4:40b-41) : 수가 마을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수가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사 43:19).

9)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 줄 알아라 하였다" (요 4:42) :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당신이 '이분이 그리스도시 말씀하시오'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그분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 이 분은 참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 진달자를 넘어서서 복음의 중심에 말씀을 보여 줍니다. 복음전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와 통전적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사람들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타락으로부터' 구속하시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즉, '변화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나라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지금도 여기에서 그리고 저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나라의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연재나 아래와 같은 **'통전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1) **영적 변화**: 전에는 죄의 권세에 눌려어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구주 예수께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2) **정서적 변화**: 전에는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과 함께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3) **사회적 변화**: 전에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고 경멸하는 것 때문에 이웃 사람들을 피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 줍니다.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그

녀의 말을 믿고 메시아 예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World Vision

4) **신체적 변화**: 전에는 자신의 몸을 음란에 던지는 '죄의 도구'였지만, 이제 그녀의 몸은 새롭게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론 '온전한 회복'이요 '통전적 변화/해방'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

월드비전이 고통당하는 사람들(가난, 굶주림, 질병, 재난, 억압 등으로)을 돌볼 때 지향하는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상태로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1) 경제적 변화: 가난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남니다.
2) 신체적 변화: 질병 등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납니다.
3) 정서적 변화: 무시나 멸시나 차별 등으로 형성된 낮은 자존감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4) 사회적 변화: 죄악로 말미암는 분노로 인하여 이웃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이웃을 용납할 뿐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5) 영적 변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합니다.

이렇게 통전적 변화에 이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요 하나님나라의 선교입니다.

World Vision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월드비전 선교센터 김희수 목사

21세기, 가장 큰 문제인 가난

과학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구는 하나의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함께 의학도 발전하여 웬만한 질병은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가난'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한편에서는 풍요 속에서 매일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과학문명의 이기(利器)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난으로 인해 굶주리는 사람들, 가난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가난으로 인해 착취하는 사람들, 가난으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 가난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세기, 첨단의 시대에 '가난'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와 고치의 선교

가난은 사람의 '존엄'(dignity)을 훼손합니다. 가난은 기회를 박탈합니다. 가난은 희망을 앗아갑니다. 가난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합니다. 심지어 가난은 생명을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사람의 생명을 억압하거나 파괴하는 힘입니다.

가난은 사람을 해(害)하는'강도'(robber)입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반(反)하는 악(evil)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The Evil One; 마귀)는 가난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가난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World Vision

가난으로 억압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the poor)은 살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고통스런 환경에 놓여져 있고,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배움이나 개발이나 정보로부터 소외되며, 너무도 쉽게 위협에 노출됩니다. 그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곧 '억압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므로 월드비전은 '가난한 사람들(the poor)과 '억압된 사람들'(the oppressed)을 나누어 말하지 않고 '가난으로 억압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the poor and oppresse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난으로 억압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가난, 굶주림, 질병, 열악한 환경, 재난, 전쟁 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사역 곧 선교의 대부분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돈이 없는 사람'(경제적 가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신체적 가난), '마음이 상한 사람'(정서적 가난), '버림받은 사람'(사회적 가난), 그리고 죄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영적 가난) 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전적으로 해방시키는 통전적 변화(Holistic Transformation)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상태로 회복되어 존엄, 정의, 평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구속(救贖)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만이 부르는 '소리 없는 살인자들'(Silent Killers)

지금 지구촌에서는 3초마다 1명의 어린이(5세 이하)가 매주 약 20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중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Haiti)에서 발생했던 대지진이 매주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피해 규모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근본 원인은 가난입니다. 굶주림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면 쉽게 질병에 걸리고 오염된 물로 수인성 질병에 빠집니다. 예방이나 치료와 같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므로 가난, 굶주림,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 그와 관련된 원인들을 가리켜서 '소리 없는 살인자들'(Silent Killers)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곧 사탄(Satan, 마귀)는 이 '소리 없는 살인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同一視)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림이나 목마름으로 고통당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원수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사람을 먹이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라(롬14:20)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특히 어린이들을 '소리 없는 살인자들'의 위협 하에 내버려 두는 것은 고통당하는 주님을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들'로부터 무고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교동역자로서의 '가난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거나 공동체의 부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해 통전적 변화(해방)에 이르게 된다면, 그들은 수가성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참여하는 선교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변화된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능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가난한 사람'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대행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방법입니다.

World Vision

고통이 휘몰아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

- 글: 팀 디어본 (Tim Dearborn, 국제월드비전 선교담당 리더)
- 번역: 월드비전 선교센터 김희수 목사

지난 1월 12일 16:53분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Haiti)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하여 20만 여명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월드비전은 파트너쉽 지원에서 아이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대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절망과 고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이티에 지진이 발생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혹은 '아이티에 이런 재앙이 임습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사람이 전혀 손을 수 없는 대재앙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성경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월드비전의 선교신학자 팀 디어본(Tim Dearborn)은 아이티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신학적으로 사고하려고 애써있습니다. 그의 글은 신학적 사고(思考)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성경적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그의 글을 선교동역 독자들께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통이 휘몰아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개인이 겪는 고통은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이든, 폭력이든, 강도를 당하는 것이든, 가난이든, 자연재해이든 간에, 대개 영적인 질문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대재앙은 곧 영적인 붕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영장난 긴급사태가 영적인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이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긴급사태든 모두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일으킵니다:

-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 **당신은 왜 이런 고통(재난)을 허락하셨습니까?**
- **왜 어떤 사람들은 살려 두시고, 다른 사람들은 죽게 하십니까?**

World Vision

어디에서 일어나든, 어느 때에 일어나든 간에, 대재앙으로 말미암는 고통은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이티(Haiti)에서 일어난 비극은 너무도 참담해서 말로는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이티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듭해서 발생하는 고통을 견디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토록 크게 엄습한 재앙을 맞았습니다. 사실 그 참담함은 말로는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라고 호소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같은 크리스천들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므로 가난, 굶주림,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 그와 관련된 원인들을 가리켜서 '소리 없는 살인자들'(Silent Killers)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곧 사탄(Satan, 마귀)는 이 '소리 없는 살인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우리의 파손된 삶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사 53:4).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충만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벧 2:5-11).

둘째, 이런 고통에 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확보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는 '새 창조'(the New Creation) 때에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기, 곧 고통이 있는 현재와 약속이 있는 미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창조세계'과 '그 세계의 타락과 파손'사이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창조세계'와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현될 창조세계'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창조세계의 파손, 죄로 말미암는 파괴, 그리고 질병 재난 죽음과 같은 마귀의 만행(蠻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법도 뒤엎지 않는 분이시며, 창조세계가 타락함으로써 맞이하게 될 결과들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므로 모든 창조세계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우리의 몸이 구속되고, 그리하여 창조세계도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롬 8:25).

셋째,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고통 그 너머에서는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다! (suffering doesn't have the last word!) 라고 선포합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 21:3-5).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은 심오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

히브리 언어에서 '희망'이란 말은 놀랍게도 '거미집(web)을 지탱하고 있는 긴장(tension)'을 묘사하는 그림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미집은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큰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희망이란 두 지점 사이로 뻗어 있어야 하는 것, 곧 현재와 미래 모두에 걷고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미집에서 거미줄들은 바로 희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약속된 미래를 견고히

불잡고 있는 동시에, 고통이 있는 현재에도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므로 히브리서 6:18-20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표준새번역).

넷째, 이런 희망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굴복하거나 도망치지 않으며,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우리 삶의 몫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에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성읍에서 탓할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렘 29:5). 희망은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르는 모든 것들에 대해 **기쁘으로 반대**하면서 살게 해 줍니다. 그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진술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후 1:3-4).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하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깝고 먼 곳에서 고통의 무게로 인해 넘어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되, 그들이 그 희망을 직접 만질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곧 돌보미들(care givers)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에 더하여, 그런 고통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중간자**의 삶을 영위하면서, 현재의 파슨을 경험하는 가운데 오고 있는 천란한 하나님나라의 징조를 나타냅니다.

월드비전은 한국전쟁이라는 고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월드비전은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존재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는데 반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넉넉하게 누리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통을 겪기에 내려오시기, 우리의 스승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그리하여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생명과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 피난처, 보건, 옹호, 경제개발, 고통을 유발시키는 구조들을 바꾸는 것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눈물 흘릴 때에 사람들을 [illegible] 하여야 하나님 -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 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모든 슬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의 한 복판에서 당대하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주님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통전적 선교

월드비전 선교센터 김희수 목사

1. 가난은 '소리 없는 살인자'(Silent Killer)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구촌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가난'이 불러오는 재앙이다. 가난은 어린이들을 굶주림으로 억압한다. 가난은 어린이들을 질병으로 억압한다. 가난은 굶주리는 어린이들의 목숨마저 빼앗는다. 가난은 중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을 예방할 수 없게 만들고 그 질병을 통해 어린이들의 목숨마저 빼앗는다.

가난의 재앙이 가져다주는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3초마다 1명의 어린이가 가난, 굶주림, 혹은 예방(치료) 가능한 질병에 의해 죽음에 이르고 있다. 가난은 하루에 약 3만 명의 어린이들을 '살해'하고 있다. 가난는 1주마다 약 21만 명의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1주 동안 가난이라는 재앙이 만들어내는 피해규모는 지난 2004년 남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쓰나미(tsunami; 지진해일)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가난은 '소리 없는 살인자'(Silent Killer)[1]이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매일 약 25,000명이 굶주림과 관련된 원인에 의해서 사망하고 있다.[2] 매년 약 900만 명이 굶주림이나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다. 매년 12만 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하는데, 이들 중 50~60%는 영양실조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FAO 2002, p.6).

북한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소리 없는 살인자'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한의 많은 어린이들은 비만을 걱정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어린이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2008년 5월 19일자 뉴스위크지(Newsweek)의 "가장 큰 위기"(The Biggest Crisis of All)란 제목의 기사는 '북한의 장기적인 식량부족과 기근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 기사에 의하면, 북한 성인의 신장은 남한 성인에 비해 약 18cm 작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영양결핍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굶주림은 영양결핍, 영양결핍으로 말미암는 질병과 성장장애,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1) 가난, 굶주림, 예방(치료) 가능한 질병을 가리키기 '소리 없는 살인자들'(Silent Killers)로 불렀다. 그리고 남 굶주림이나 예방(치료) 가능한 질병에 시달려 해는 것은 가난이다. 그러므로 가난이야말로 '소리 없는 살인자'(Silent Killer)라고 말해져 되는 것이다.

2) Newsweek, (2008. 5. 19), "The Biggest Crisis of All" 솔리 고오든 브라운(Gordon Brown)

우리나라(남한)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1만 2천 톤에 이르며, 1,400여대분이나 된다고 한다. 1년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410만여 톤으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조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굶주리는 어린이들이 많다.

이러한 비극적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나? 한국전쟁 때 '깨어진 하나님의 심장'(the broken heart of God)의 고통을 담아서 기도했던 빕 피어스(Bob Pierce) 목사님이 기도가 생각난다.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에 의하여 저의 심장도 깨어지게 하옵소서!"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2. 가난의 덫 (Poverty Trap)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곧 억압된 사람들이다. 가난의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한 영국 서섹스대학의 챔버스(Robert Chambers)[3]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불리한 조건들에 얽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설명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불리한 조건들 때문에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난하게 혹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챔버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난하게 혹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5개 영역의 불리한 조건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가난의 덫'(poverty trap)으로 불렀다. 월드비전의 선교전문가인 브라이언트 마이어스는 챔버스가 언급한 '가난의 덫'에 '영적인 영역'을 추가하고 그 6개의 영역들을 '가정의 가난 체계'(The poverty system of the household)라고 했다.

첫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재산(assets)이 거의 없다. 그들은 살기 적절하지 못한 집에서 그리고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산다. 그들에게는 토지도 없고, 가축도 없고, 돈도 없다.

둘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허약하다. 그들은 건강상태나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약하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는 여성,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이 많다.

셋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나 정보에

3) Bryant L. Myers, Walking With The Poor, Orbis, p. 66~68. Robert Chambers는 영국 서섹스대학(University of Sussex)의 개발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존경받는 개발전문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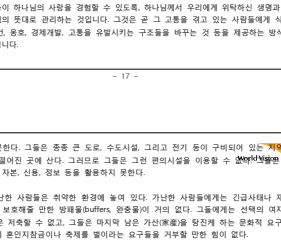
4) Ibid, p. 67. 브라이언트 마이어즈(Bryant L. Myers)는 월드비전코로셀레에서 오랫동안 개발과 선교를 담당해오다가 '풀러'로 옮겨와 현재는 Fuller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접근하지 못한다. 그들은 종종 큰 도로, 수도시설, 그리고 전기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런 편리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아주 먼 시장(market), 자본, 신용, 정보 등을 활용하지 못한다.

넷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긴급사태나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해줄 만한 방패물(buffers, 완충물)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저축할 수 없고, 그들은 마지막 남은 가산(家産)을 탕진케 하는 문화적 요구들, 가족 신부의 혼인지참금이나 축제를 벌이라는 요구들을 거부할 만한 힘이 없다.

다섯째,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주변환경이나 사회제도에 영향을 줄 만큼 힘도 없고 지식도 없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불리한 조건에 머물게 된다.

여섯째,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창조세계와의 관계 등이 파손되어 있거나 역기능적(dysfunctional)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인 억압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들은 영들(spirits), 귀신들(demons), 그리고 조상들(ancestors)을 두려워한다. 그들에겐 희망이 없다. 그들은 자기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거나, 들었다 해도 변화의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에 응답했을 뿐이다.



가정의 가난 체계
(The poverty system of the household)

3. 가난의 영향은 통전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억압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월드비전은 가난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가난하면서 억압된 사람들'(the poor and oppressed)란 표현을 사용한다.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여 가난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게 만든다.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을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억압한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취약하다 (신체적인 영향).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소중한 관계들(이웃들)을 왜곡(歪曲)하기도 하고 파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단절되거나 고립되어 있다 (사회적인 영향).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립시켜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자기개발의 기회를 박탈한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경쟁에서 패배하기 쉽다 (경제적 영향).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희망을 앗아간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포자기나 분노에 사로잡히기 쉽다 (정서적 영향).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한 권력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 불의한 권력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억압한다 (정치적 영향).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이나 운명의 포로가 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해방과 새로운 삶을 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다 (영적 영향).

이렇게 가난의 파괴적 영향은 경제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영적 차원에 미친다. 그러므로 '가난과의 전쟁' 곧 오늘의 선교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영적 차원에서의 해방을 동반하는 '통전적 선교'가 되어야 한다.

4. 월드비전의 통전적 선교

월드비전의 선교적 사명은 소명헌장(사명선언문, Mission Statement)에 잘 나타나 있다.[5] 월드비전의 사명은 우리의 주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the poor and oppressed)과 함께 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들을 통전적으로 변화(해방)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통전적(Holistic)이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월드비전의 사역은 '통전적인 변

5) Mission Statement, "World Vision is an international partnership of Christians whose mission is to follow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in working with the poor and oppressed to promote human transformation, seek justice and bear witness to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화'(Holistic Transformation)를 지향한다.

월드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the poor and oppressed)과 함께 인간의 변화(Human Transformation), 정의구현(Seek Justice) 그리고 하나님나라 복음 증거 (Bear Witness To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한다.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이 가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을 수행한다. 월드비전의 개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로의 변화 곧 하나님나라를 향한 변화를 목표하기에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Transformational Development)이라고 부른다.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은 개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통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이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은 인간의 변화, 정의구현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복음 증거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의 변화'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언급한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전제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영위할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참여하여 '변화의 대행자'(Agent of Transformation)가 된다.

'정의구현'은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부정의(不正義)한 체계들(systems) 과 구조들(structures)의 변혁을 지향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온갖 불리한 조건들 속에서 살고 경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가난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부정의(injustice)이다. 이 부정의한 체계들과 구조들을 정의롭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정의구현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의 변화를 지향하는 월드비전의 개발(Development)은 반드시 '정의구현'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나라의 복음증거'는 가난한 사람이 변화에 이르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개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인 억압'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미신을 믿고, 영적 능력이 있다고 믿는 무당이나 마술사의 저주를 두려워하여 변화를 거부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런 영적인 억압으로부터 풀어서 자유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될 때, 그들은 진정한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변화에 이르게 하기 위한 개발(Development)은 반드시 '하나님나라의 복음 증거'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6]

5. 하나님의 선교와 가난한 사람들

6) Bryant L. Myers, *Walking With The Poor*, Orbis, p. 66.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illegible] 말미암는 통전적 해방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의 선교 또한 통전적이어야 [illegible]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거나 공동체의 부담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God's Mission)에서 요긴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해 통전적 변화(해방)에 이르게 된다면, 그들은 수가성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참여하는 선교동역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문화와 환경을 잘 알기 때문이고, 둘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통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능력과 구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화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대행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관심하시고 배려하시며 사랑하셨다. 이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同一視) 하셨다.[7]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내가 헐벗고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 준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심판을 주도하실 심판장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 준 사람들에게는 창조 때부터 예비해 두었던 하나님의 영광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이다.[8] 그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돌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나라를 보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가난한 사람은 마치 '강도를 당하여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과 같다.[10] 그러므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7) 요한복음 4장을 참조.

8)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기록되어 있음. 예수는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옷을 입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 본 것이라 말씀하셨음.

9) 마태복음 25장 24절.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10)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예수님은 한 율법사로부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란 질문을 받고 그 비유를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가진 옷과 모든 돈, 소재지를 빼앗기 가장 중간에다 거의가 인적이 없는 사막길 대피인 추신의 인간을 위해 그를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길을 통해 목적지로 향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는 어떻게 해서든 그를 살리고자 자신의 소유를 희생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대로 가난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싸워서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 가난을 묵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은 오늘 '하나님 선교'(God's Mission)의 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와 월드비전의 선교동역 모델

- 월드비전 회장 박 종 상 목사

1. 통전적 선교 모델

월드비전과 한국교회의 선교동역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으로 통전적 선교 패러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 많은 선교신학자들이 통전적(Wholistic) 선교신학을 다룸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월드비전 안에서도 통전적 선교 모델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다.)

선교 = 전도 + 교육 + 봉사(사회봉사 + 사회행동) + 친교

이것을 영어공식의 형태로 표현하면, M=E+N+S(SS+SA)+F이다.
Mission(M) = Evangelism(E) + Nurturing(N) + Service(S)(Social Service(SS) + Social Action(SA)) + Fellowship(F)

이런 통전적 선교신학의 모델은 또한 교회의 선교기능이기도 하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E), 교인들을 양육하며(N), 복음실천의 표현으로 봉사(S)를 하는데, 봉사는 두 가지 형태로 사회봉사(SS)와 사회행동(SA)으로 나타나고, 또 교회는 친교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네 가지 선교의 요소가 합하여 통전적 선교신학이 정립되고 선교의 포괄적 개념이 정립된다. 이와 같은 교회의 통전적 선교 기능을 월드비전과 같은 기독교 구호·개발 기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통전적 선교모델에서 월드비전의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교회와의 선교동역 모델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2. 복음의 씨에서 나타난 두 열매 : 전도와 봉사

복음의 씨가 기독교인 개인의 마음 속이나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서는 전도와 봉사가 불가분하게 나타나게 된다. 전도(E)는 복음의 직접적인 선포이고, 봉사는 선포된 복음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알게 하는 또 하나의 전도이다. 기독교적 사회봉사 곧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디아코니아 사회봉사는 전도와 똑같이 복음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는 말씀의 선포에 중점을 두고 디아코니아 사회봉사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전도는 복음의 핵심요소로 보고, 봉사는 비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이 결과 평신도들이 행하는 기독교적 사회봉사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하여 강조되는 전도에 비하여 비핵심적인 또는 세속적인 행위로 보여 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써 평신도의 신학정립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통전적 선교모델은 분명히 말씀의 전파(E)와 전파된 말씀의 실천(S)이라는, 곧 전도와 봉사의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핵심은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도와 봉사는 "수레의 두 바퀴", "가위의 양날", "바지의 두 갈래"와 같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면 선포된 복음은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복음다워지고, 전도가 전도다워짐을 의미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과 삶의 일치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하셨다(마 5:13-15, 약 2:14-17). 여기에서 교회와 월드비전의 선교 파트너십 패러다임(Paradigm)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

3. 통전적 선교모델과 월드비전의 선교 기능

교회가 통전적 선교모델에 비추어 전도·교육·봉사·친교의 4대 핵심기능을 다 수행하는 주님의 몸된 선교기관이라고 본다면, 월드비전은 이 교회의 기능 중 특별히 봉사의 기능을 위탁받은 교회선교의 특별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교회가 봉사의 선교기능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복음실천으로서의 봉사의 대상이나 전쟁·재난·빈곤기아·질병 등 특수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어렵다. 사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기관으로 한국전쟁, 북한의 기아문제, 이란의 재난, 빈곤지역의 문제 등에 대해 전문적·대량적·체계적·지속적인 원조를 요하는 긴급구호(Emergency Relief), 구제(Relief), 개발(Development), 옹호(Advocacy) 사업 등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기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생명이 죽어갈 때 그 생명을 구해야만 한다. 이런 사역은 통전적 선교모델에서 봉사(사회봉사와 사회행동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속하는데, 이 중요한 교회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월드비전을 설립케 하여 교회의 특수한 봉사사역을 위탁하게 하셨다.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의 주된 선교사명과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월드비전의 선교사명은 상호보완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월드비전은 교회의 선교동역기관이며, 가난한 사람과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대신하거나 교회와 함께 동도록 월드비전을 창설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고 본다.

전도는 복음의 핵심이고 봉사는 비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봉사를 주로 하는 월드비전

이 교회의 선교동역기관이 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교회와 월드비전이 서로 거리를 두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전도와 봉사의 문제에서 기인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4. 통전적 선교모델을 통한 교회와 월드비전의 동역선교의 방향

한국에서 대형교회나 중형교회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개교회별로 통전적 선교인 전도, 양육(교육), 봉사, 친교를 잘 사역하고 있다. 대형교회의 경우, 동남아·아프리카·남미 등 해외까지 이런 선교사역은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쟁·재난·기아·빈곤·질병 등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지구촌의 문제나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인간의 생사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대형교회조차도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 특히 아프리카 등 지리적으로 먼 나라에서 인간고통의 상황이 발생할 때, 교회는 급속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교회가 세운 월드비전과 한국교회가 협력하여 동역선교(Mission in Partnership)를 적시·적소에서 전개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구원의 손길이 죽어가는 생명에게 다가가서 이를 구원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고 본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현재와 같은 지구촌 사회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세계적 차원에서 만연되고 시급한 구호의 개입을 요하는 상황이 보다 자주 발생한다. 이 때에 교회와 월드비전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선교동역체제(Mission Partnership)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21세기의 선교사역지는 모든 선교단체나 기관의 동역체계(Partnership System)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개신교로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동역선학(Partnership Theology)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하나님은 21세기의 커다란 인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가 합동하여 공동으로 효율적인 선교를 동역선학의 패러다임 하에서 전개할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월드비전은 독립된 거대한 국제적 기독교 구호·개발단체로서의 지금까지의 그 제한된 정체성을 벗어나 교회와 선교동역관계를 맺고 21세기 교회가 수행하여야 할 선교사역의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교회와 월드비전의 진지한 대화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Part 2. 회악의 시기에 일어난 최상의 일들 (The Best things in Worst times)

하나님의 아픔에서

월드비전은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에 의해서 잉태되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전쟁(1950년)은 준엄한 생명을 짓밟고 파괴했습니다. 언제나 전쟁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고 파괴하지만, 한국전쟁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한국전쟁의 한 복판에서 한국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깨어지고 있음'을 온 몸으로 느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출신의 젊은 복음전도자 '로버트 윌라드 피어스'(Robert. Willard Pierce) 목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빕 피어스'(Bob Pierce)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전도자 빕 피어스

빕 피어스는 본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복음전도자'(Evangelist)였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빕 피어스는 1949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 남대문교회(김치선 목사)에서 복음전도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고, 남대문교회와 함께 3천만 구령(救靈)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빕 피어스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2달 전, 한국 땅에 들어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복음전도집회를 열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구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빕 피어스는 한국 땅에서 수많은 군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했을 뿐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한국전쟁과 월드비전

한국전쟁이 터지자, 빕 피어스 목사는 한국 땅에 다시 들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빕 피어스는 1950년 10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Christian Digest)』지의 중군기자 자격을 획

득하고 위험과 고통이 가득한 한국 땅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빕 피어스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서방의 대변자(a voice)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빕 피어스는 전쟁에 대한 기사를 쓸 뿐 아니라 전쟁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필름에 담아서 남한의 교회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렸습니다.

빕 피어스는 위험한 전장(戰場)을 다니면서 전쟁이 벌어내는 참상을 필름에 담아 기록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전쟁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빕 피어스가 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만들어낸 보도는 청취자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한국(남한)의 사람들을 돕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간절히 돕기를 원했습니다.

빕 피어스 그는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나라에서, 끔찍스러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빕 피어스 그는 생명이 짓밟히고 파괴되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성경 앤 앞면에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에 의하여 저의 심장도 깨어지게 하옵소서!" (Let me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란 기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깊은 차원의 기도는 그의 생애가 되었고, 월드비전의 기도와 사역방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빕 피어스. 그는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에 대응하려고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빕 피어스. 그는 한국전쟁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과연,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빕 피어스. 그는 한국전쟁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은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Telling the Gospel)뿐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Giving the Gospel)이 있음을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빕 피어스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서방의 대변자(a voice)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빕 피어스는 전쟁에 대한 기사를 쓸 뿐 아니라 전쟁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필름에 담아서 남한의 교회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렸습니다.

빕 피어스는 위험한 전장(戰場)을 다니면서 전쟁이 벌어내는 참상을 필름에 담아 기록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전쟁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

정체성

- 사명, 비전, 그리고 가치 -

1. 월드비전의 사명 – 소명선언(Mission Statement; 사명선언문)

<한글>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독교인들의 국제협력기관으로서, 우리의 소명은 인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영문>
World Vision is an international partnership of Christians whose mission is to follow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in working with the poor and oppressed to promote human transformation, seek justice and bear witness to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Transformational Development)
- 긴급구호(Emergency Relief)
- 정의구현(Promotion of Justice)
- 교회와의 파트너쉽(Partnership with Churches)
- 홍보 및 마케팅(Public Awareness and Marketing)
- 예수 그리스도 증거(Witness to Jesus Christ)

1) 소명현장 이해하기

● 월드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시오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국제 파트너쉽입니다.

● 월드비전의 사명은 우리의 주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인간의 변화, 정의구현,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복음 증거를 위해 일합니다.

2) 사명실현을 위한 6대 전략

월드비전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일합니다.

●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Transformational Development)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을 수행합니다.

● 긴급구호(Emergency Relief) ; 전쟁이나 재난 등에 의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 정의구현(Promotion of Justice) :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당한 구조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교회와의 파트너쉽(Partnership with Churches) :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위해 일합니다.

● 홍보(Public Awareness) : 우리의 사역을 알림으로써 이해, 즉, 참여 그리고 기도를 만들어 냅니다.

● 예수 그리스도 증거(Witness to Jesus Christ) :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도록 삶으로(by life), 행동으로(by deed), 말로(by word) 그리고 표적으로(by sign)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합니다.

2. 월드비전의 비전 – 비전선언(Vision Statement)

월드비전은 2003년 '월드비전 기도의 날'(10월 1일)에 다음과 같은 비전현장(Vision Statement)을 선포했습니다.

Our Vision for Every Child, Life in All Its Fullness
Our Prayer for Every Heart, the Will to Make it so.

모든 어린이를 위한 우리의 비전,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삶
모든 마음을 위한 우리의 기도, 그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1) 월드비전 비전현장에 대한 기본 이해

월드비전 비전 현장의 전형(model)은 '어린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And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en.").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어린이 예수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하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비전현장은 '우리의 비전'(Our Vision)과 '우리의 기도'(Our Pray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비전현장의 의미

비전현장을 풀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린이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어린이가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혹은 '모든 어린이의 생명이 풍성해 되는 것'(요 10:10)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런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라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월드비전의 비전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3;3) 여기에 언급된 '생명'을 지시하는 성경의 원어(희랍어)는 '조-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5)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원(영적, 물적, 인적, 사회적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3) 우리의 비전(Our Vision)

모든 어린이를 위한 우리의 비전, 모든 영역에서의 충만한 삶
Our Vision for Every Child, Life in All Its Fullness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생명의 충만'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월드비전의 창설자 밥 피어스(Bob Pierce)가 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제 마음도 상하게 하옵소서"(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라는 기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요 1:3). 우리는 '생명의 보존자'(the sustainer of life)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하여(요 10:10) 오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예수님께 드리고 희망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생명이 모든 영역에서 충만케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충만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속의 관계 그리고 성령께서 성장하도록 능력주시는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삶의 풍성함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상깊게 만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하나님 선교의 참가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여주 교회의 의미)을 이루는 지체가 될 때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이 및 어른 모두와 만물이 최상의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의의 평화는 지구촌 모든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은사를 통해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행복케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가정이 생명을 기르고 지역사회가 안전과 기회를 제공할 때 모든 사람은 온전해 이르게 됩니다. 모든 자원 곧 물질적, 사회적, 육체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될 때 개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변화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전이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으며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치욕 있는 사람들이나 학문이 있는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계시를 받습니다(눅 10:21).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특별히 정죄하셨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4) 우리의 기도(Our Prayer)

모든 마음을 위한 우리의 기도, 그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Our Prayer for Every Heart, the Will to Make it so.

술프게도 가난, 갈등 그리고 무관심 등으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의 충만한 삶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깨어지고 말았다. '악한 자'(여주, 마귀)는 생명을 거부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며, 파괴합니다.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방치되며 어른들의 의제를 위한 저당물로 취급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너무도 약하여 빈곤, 부정, 이기심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세상에 맞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삶은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에 의해 약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일할 때 그리고 미래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내다볼 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날을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그 때에는 어린이들이 단지 영유아에 살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때에는 더 이상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린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불행에 빠지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사 65:19, 20, 23).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종종 너무 깊어서 몇 마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모두가 충분히 소유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씻어주고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나중 된 사람이 첫째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이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장재능력을 대변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과 신실을 주시어 후원자들과 직원들, 가난한 지역사회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과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춘 사업을 만들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해를 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리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느끼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후원자들이나 직원들과 함께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뜩적을 발견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를 내세움으로써 덜 소유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시될

때에 침묵한데 대한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곧 종성된 청지기와 겸손한 중요로서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과 행동이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솟아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비전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비전을 실현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깨어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보셨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기는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5) 비전현장의 5대원칙

●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신실한 심부름꾼이 된다.
● Faithful messengers of God's love

● 정의와 평화를 달래히 조장하는 사람이 된다.
● Courageous promoters of justice and peace

● 지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믿음직한 파트너가 된다.
● Trusted partners in lasting change

● 협력의 본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협력하도록 한다.
● Inspiring model of cooperation

● '보살핌'(caring)을 강력하게 유발시키는 사람이 된다.
● Powerful motivators of caring

3. 월드비전의 핵심가치

1) 핵심가치들

월드비전은 6개의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들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열망하는지의 핵심을 이룹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We are Christian

●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 We are committed to the poor

●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 We value people

●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 We are stewards

●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 We are partners

● 우리는 응답합니다
● We are responsive

2) 핵심가치들에 대한 이해

●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We are Christian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 자비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풍성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사역에 대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함께 "예수는 사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사셨다.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 개인이나 기관에서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고자 노력 합니다 --- 그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압제 당하는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을 특별히 관심하셨고; 그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에게 부여된 존엄을 존중하셨고; 그는 정의롭지 않은 태도들과 제도들에 도전하셨고; 그는 자원을 서로 나눌 것을 요구하셨고; 그는 차별이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는 자기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나라의 복음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것(하나님나라의 복음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은 우리가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는데

기초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기라'는 요구를 듣고 그분으로부터 성김의 삶의 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기관에 깊이 배어있는 '종의 정신'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이렇게 종의 정신을 따르기로 약속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교만, 죄, 그리고 실패와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구속(redemption)을 증거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믿음을 구비하여 그 구속을 증거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민감하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 We are committed to the poor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도록; 그리고 그들의 처해 있는 조건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연대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들이 생명의 충만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들 편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모두가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로 약속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수동적인 수혜자들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들로서 존중합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진 세상에서 정의, 평화, 화해 그리고 치유를 위해 노력합니다.

●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 We value people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신 존재들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돈이나 구조나 제도나 다른 기구들보다 사람을 우선시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 가난한 사람들, 부유자들, 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이사들, 그리고 자원자들 - 의 존엄, 독특성 그리고 본래적 가치 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개성, 문화, 그리고 기부가 아주 다양하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사역하는 관계들에서 참여적이고, 개방적이며, 힘을 부여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을 개발하도록 격려 합니

다.

●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 We are stewards

우리가 다루는 자원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후원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성한 위탁물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원들이 주어지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그 자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관리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후원자들, 사업장이 있는 지역사회들, 정부들, 일반대중, 그리고 서로를 다룰 때 개방적이고 사실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실제와 일치하는 공적인 이미지를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일치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능력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조를 구비함으로써 책임지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들과 공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돌보고 환경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발 활동들이 생태계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임을 보장합니다.

●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 We are partners

우리는, 지역이나 구조나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월드비전 국제 파트너쉽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쉽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의무사항들, 곧 공동의 참여, 공동의 목표, 그리고 상호간의 책임을 수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자치권을 기꺼이 양도할 것임을 단언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역자들인 동시에 후원자들의 동역자들로서 그들과 함께 사역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일치를 단언하고 이를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들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월드비전과 교회들이) 사역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통전적 선교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다른 인도주의 기관들에 대하여 협력적인 자세와 개방적인 정신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관들의 우리의 사역에 대한 정직한 견해들을 기꺼이 수용하고 검토합니다.

● 우리는 응답합니다
● We are responsive

우리는, 우리의 개입이 필요하고 적절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상황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앞고 있는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고 신속하게 생동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요구되는 경험과 만감성을 토대로 긴급상황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위기의 한 복판에서조차, 그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가 긴급상황에 응답하는 데, 역자 삽입) 기여할 바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뿌리가 깊고 종종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박탈로 인해서 지속적이 장기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곳에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약속(commitments)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예외적인 기회들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혁신, 창조성, 그리고 융통성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더 숙련되기 위하여, 배우고 반성하며 발견하려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우리의 약속

우리는 가치들은 법으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인정 합니다. 우리는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문서도 우리의 삶과 사역의 뼈대를 형성하는 태도들, 결정들, 그리고 행동들을 대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핵심가치들을 월드비전 파트너쉽 안에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지하고, 우리가 의식결정을 할 때 그 가치들을 존중하며, 우리의 관계들에서 그 가치들을 표현하고, 월드비전이 사역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 가치들과 일치하게 행동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변화

The Kingdom of God & Transformation

정의와 변화

성경은 '변화'(transformation)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고 증거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Creator)로 계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온든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변화를 향해 세 혁시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던 아브람(Abram)을 불러내시고, 그를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서 만민을 위한 '복'(a blessing;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권세에 굴복하고 타락으로 치닫던 인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시시한 존재를 부르시고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곧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역동적인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구주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께서 십자가고난에 직면하고 계실 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어, 그를 회개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반자 베드로'는 '충성된 사도 베드로'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성도들)를 잔인하게 박해하던 사울을 찾아오시고, 그를 회개시키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사도 바울'로 만들어 주시었습니다(행 9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시어 회개케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시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변화시켜서 변화의 대행자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부활 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성령을 보내 주시었습니다.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성령은 여주 평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무리, 곧 교회가 되게 하시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사만 변화의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증거 하는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죄인들 사이에 들어가시고, 그들과 어울리시며,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변화(회복)의 사건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땅 수가 마을로 가시어 죄에 매여 있던 여인을 구속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변화)사역에 현신하는 '변화의 대행자'(Agent of Transformation)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여리고를 들르시어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변화)사역에 현신하는 '변화의 대행자'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대행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기독교란 종교를 지지하거나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a new creation)로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변화된 사람'(recipient of transformation)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구속)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현신하는 사람, 곧 '변화의 대행자'(agents of transformation)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구속)사역에 현신하는 '변화의 대행자'는 대단한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구속)사역에 참여하는 '변화의 대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목적을 이사야(61:1-3)의 예언을 인용하시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가난한 사람"이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해할 때, '마음이 상한 자'(the brokenhearted), '포로된 자'(the captives), '갇힌 자'(the prisoners) 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the poor)은 '억압된 사람들'(the oppressed)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주의 은혜의 해'(the year of the Lord's favor)를 선포하기 위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희년'(Jubilee; 레 25:10)을 지시합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에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파손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출발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사역 곧 선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돈이 없는 사람'(경제적 가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신체적 가난),

'마음이 상한 사람'(정서적 가난), '버림 받은 사람'(사회적 가난), 그리고 죄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영적 가난) 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해방시키는 통전적 변화(Holistic Transformation)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월드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사명으로 고백하는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the poor and oppressed)과 함께 일합니다. 여기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이란 가난, 굶주림, 질병, 전쟁, 재난 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고통을 너머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인 사람들(the vulnerable)이기도 합니다.

"월드비전이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월드비전이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월드비전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월드비전이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그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의 '통전적 변화'를 위해 일합니다. 월드비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인간의 변화(Human Transformation), 정의 구현(Seek Justice),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증거(Bear Witness to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을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God's Mission, Missio Dei)에 참여하는 것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변화)사역에 현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변화

Human Transformation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사람들과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redemption)은 반드시 '인간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인간의 변화'란 한 사람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들, 곧 영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인 영역들에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전적 변화'(Holistic Transformation)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로 기술하고 있는, '충만한 삶'(fullness of life), 곧 존엄, 정의, 평화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삶에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라 하는 마을에 죄에 매여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과 불륜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매여 있던 그녀를 찾아가 그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었습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과거엔 남자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음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엔 과거엔 죄책감으로 말미암은'낮은 자존감'(Low Self-esteem)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정서적 변화). 과거엔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신뢰하고 메시아 예수께로 나옵니다(사회적 변화).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 그녀는 또한 이웃을 구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변화의 대행자'(agent of transformation)가 되었습니다.

월드비전이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실시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Transformational Development)은 어린이,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통전적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과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월드비전에서 18년 동안 '개발'(development)에 현신했던 사무엘 부어히스(Samuel J. Voorhies)는 "개인의 영적 해방이 없다면, 개발은 언제나 개개인들의 탐욕과 타락에 그치고 말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변화가 없이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의 구현

Seek Justice

'악한 자'(마귀)는 처음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탐욕과 이기심을 부추기어 정의와 공평을 짓밟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 '불의'(injustice,부정의)가 만들어집니다.

가난은 '불의(不義)'의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불의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듭니다. 불의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불의는 강한 자가 힘없는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가게 합니다. 불의는 가난한 사람들이 온갖 불리한 조건들에 얽매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경쟁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입니다.

마리아 한가(눅 1:46-55)에 보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불의를 심판하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 구현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상을 구속하시는 것과 불의를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는 가난한 사

● 본질과 대립을 통해 목력과 분쟁을 조장하라.
●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세상화(Secularization) 시키라.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차단하라.

World Vision

가난한 자들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난'이 '죄' 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된 일종의 전염병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죄' 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된 모든 전염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특효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육과 혼과 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생태계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해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체계들과 구조들을 바로잡아 정의와 평화를 낳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문화와 세계관을 새롭게 하여 건강한 생명문화를 낳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가 가져다 준 영향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인간의 죄는 이기심과 탐욕을 낳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도록 부추겨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말미암는 재앙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후변화에 그치지 않고 열악한 조건들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파손된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롬 8:18)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와 희망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관심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주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위임하신 거룩한 사역인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날에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주 예수는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본 사람들에게 '내가 가난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 너는 나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다. 이제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나라에 들어가라'(마 25:34)고 말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Christian Commitments of World Vision

World Vision

월드비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the poor and oppressed)과 함께 일합니다.

월드비전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인간의 변화(Human Transformation), 정의 구현(Seek Justice),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증거(Bear Witness to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등의 사역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God's Mission, Missio Dei)에 참여하는 것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변화)사역에 헌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월드비전이 추구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변화'(Transformation toward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월드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변화'를 위해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Transformational Development), '정의구현'(Promotion of Justice), '긴급구호'(Emergency Relief), 그리고 '후원개발 및 홍보' '(Marketing & Public Awareness)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변화를 위한 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수행됩니다.

● 영적인 사람 만들기 (Spiritual Formation of Saff) : 월드비전의 살아있는 믿음은 결과적으로 교회와의 파트너쉽과 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가져온다.

● 교회와의 파트너쉽 (Partnership with Churches) : 월드비전과 교회의 선교를 확장하고 풍요롭게 한다.

● 예수 그리스도 증거 (Witness to Jesus Christ) : 통전적인 사역과 교회와의 파트너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 하게 된다.

영적인 사역자 만들기

Spiritual Formation of Staff

World Vision

1.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
(Christ-centered spirituality)

월드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월드비전의 직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Follower of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Christ-centered spirituality)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은 월드비전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는 '동력'(Energy)이기 때문입니다.

2. 영적인 사역자

월드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변화'를 목적으로 통전적인 사업을 수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역자(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은 사역자(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변화를 위한 사업들에서 '변화의 대행자'(agent of transformation)가 되도록 예배, 아침경건회, 선교훈련소, 중보기도, 기도의 날,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워크샵 등을 실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하시는 창조주이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롬 8:29).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개발해 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안에서 창조활동과 구속활동을 행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난관(장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영적 훈련이란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욱 쉽게 받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행하는 '영적인 훈련들'을 말한다.

영적 성장을 달리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자가 되어 가고 제자로 살아가고, 그러므로 모든 측속을 제자로 만드는 과정'이다.

영적 성장의 목적은 그(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 형상(image; 내적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월드비전은 사역자(직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변화를 위한 사업들에서 '변화의 대행자'(agent of transformation)가 되도록 예배, 아침경건회, 선교훈련소, 중보기도, 기도의 날,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워크샵 등을 실시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월드비전의 역사

World Vision's History with Churches

World Vision

역사적 개관 : 월드비전은 초창기부터 교회와의 중요하고도 복잡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음.

1950년대로부터 1980년대까지 - 의존의 시대

월드비전은 '고아가 낳은 자식'(a child of the Church)이다. 교회와 월드비전의 관계는 전쟁이 발발된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단계는 월드비전의 지역 교회들에 대한 의존성을 육성했다. 지역 교회들, 복음주의적인 신자들, 개신교 교단들 그리고 천주교 교구들이 협력했다.

개개 그리스도인들과 회중들(교회의 신도들)은 언제나 기도와 재정으로 세계의 어린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월드비전의 선교를 지원했다. 이 선교는 월드비전의 직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져 왔는데, 월드비전의 직원들은 현신적인 신자들이었다. 특히 정책을 결정하거나 주요한 임무를 맡은 직원들이 그러했다. 교회의 전통이 다른 목회자들과 교회지도자들이 월드비전의 이사회, 협의회, 그리고 실반 직원들에게 중요한 리더십을 제공해왔다.

월드비전이 성장하고 발전하던 몇 년 동안, 월드비전의 직원들의 열성적인 교회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월드비전의 직원으로 고용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투명성(clarity, 깨끗함)과 같은 현신이었다. 월드비전의 직원들은 또한 회심과 확증(confirmation, 견진)을 받았고, 지속인 교회생활을 통해서 육성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많은 월드비전 직원들은, 그들이 월드비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전임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사업장"(field)에서 월드비전은 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쉽서 교회들을 선택했다. 월드비전이 개발사업의 파트너쉽 교회들은 대개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었다.

재원(funds)과 자원(resources)이 월드비전의 사역을 수행하던 교회지도자들을 통해서 분배되었다. 학교, 고아원, 진료소, 급식사업 그리고 직업훈련 등의 사역을 월드비전을 대신해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수행했다. 그런 사역에 참여했던 교회 지도자들은 재원과 귀중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했다. 월드비전은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들과 복음전도 집회들을 조직했는데, 이에 대하여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한 감사를 표현했다. 종종 교회들이 부흥하게 됨에 따라 그 교회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월드비전 사역의 주요 초점은 언제나 제 3 세계의 지역사회들에 맞춰져 왔을지라도, 큰 책임을 지닌 지도자들은 교회의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기여하겠다는 전략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목회자 리더십 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을 지원한 것이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들이다.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은 세계 선교를 향한 의미심장한 발걸음이었을 뿐 아니라 월드비전이 계속해서'복음' - 여기서'복음'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과 궁휼로 말미암는 사회적 행동 모두를 의미함 - 에 통전적인 방식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여준다.

World Vision

처음 30년은 비교적 조화롭 이루진 시기였다. 그러나 점점 고통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의 사역 파트너로 선택되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분노의 씨가 자라기 시작했다. 월드비전은 다른 교회나 교단들을 희생시키면서 한 교회나 교단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월드비전이 항상 사역 파트너들을 지혜롭게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월드비전과 파트너쉽을 갖게 됨으로써 혜택을 입은 교회 지도자들은 복잡한 사업들뿐 아니라 대규모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있지 못했다. 서로 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되었고 점점 어려운 문제들이 표출되어져 갔다. 정말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

1980년대로부터 1990년대까지 - 독립 시대

월드비전은 구제와 개발사업과 애드버커시(Advocacy; 옹호)를 수행하는 기독교 NGO로 자라고 성숙하게 되었다. 월드비전의 출생지인 교회에 대한 접근방식은 변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월드비전은 더 이상 교회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다. 월드비전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는 그런 비전을 실제화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조직(infrastructure)이 아니었다. 교회를 통한 사역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한 이중의 의존이 생겨났다 : 하나는 교회 파트너들이 월드비전의 재정 자원을 의존하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월드비전이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위해 교회의 한정된 능력을 의지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는 월드비전의 다음 단계를 위한 시기였다.
월드비전은 교회를 통해 사역하는 것을 그만두고 지역사회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ADP가 탄생했다. ADP의 발전에 따라, 월드비전은 사업(program)을 감독하기 위해 지역 이사회와 위원회를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 있는 파트너의 영역을 확대했다. 대개 교회 지도자들은 이사회를 대표했을 뿐, 더 이상 사업수행을 통제하거나 지도하지 않았다. 유일한 파트너가 되는 대신, 교회는 하나의 참가자가 되었다. 월드비전은 교회의 신자들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로서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가 추진하는 ADP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교회들은 ADP에로의 전환이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수행하게 된다면, 참여를 계속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만약 이런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면 교회들과의 관계는 긴장이 조성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툼도 생겨날 것이다.
여전히'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광범위한 소명한장을 확인할지라도, 직원들은 전임사역을 하거나 공식적인 기독교 교육 혹은 신학훈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관계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월드비전은 점점 더 전문

성을 구비한, 곧 기술적으로 경험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더 기술적으로 숙련된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져온 결과는 분명했다. 월드비전은 직원들의 정체성과 인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영적으로 깊어버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독교사역으로서의 정체성과 인식이 위협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World Vision

교회로부터의 독립이 교회와의 대화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관계는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교회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과정은 아름과 오해의 가능성을 수반했다. 그것은 항상 의도된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어떤 교회들은 자기들이 월드비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에서 많은 파트너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갈 때, 자기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2000년대와 그 이후 : 상호의존 시대를 지향함

월드비전은 교회로부터 더욱 독립하여 기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월드비전은 세계에서 상당히 주수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이행해왔다. 월드비전은 정부, 기업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고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했다.

월드비전은 점점 독립적인 기구로 변해갔는데, 이것은 대가(代價)를 수반했다. 많은 대변자들은 월드비전이 교회와의 거리를 점점 두었는데, 결국 월드비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 교회는 가난한 지역사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되는 기관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NGO가 떠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다. 개발사업이 지속되고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사업은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가치, 태도, 관계, 그리고 인격의 변화를 포함한다. 그리므로 개발사업은 불가피하게 '영적' 차원을 가진다. 월드비전이 영적이며 사회적인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 국가를 초월하는 기구로서 월드비전은 교단과 지리의 한계를 넘어서 교회를 연합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연합에 의해서 교회는, 그리고 월드비전은 점점 강하게 된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월드비전과 교회의 상숙한 관계를 상상한다. 이는 월드비전과 교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서로 연합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의존성(dependence)은 특징지어졌고, 우리의 현재는 '독립'(independence)으로 특징지어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정신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되기를 열망한다.

우리가 장차 만들어갈 교회와의 관계는 좀 더 상숙하고, 사려 깊고, 겸손하고 존중적인 관계이자 좀 더 참여적인 관계이다. 월드비전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 그리고 월드비전으로서 우리는 교회(Church universal; 역주, 교단을 초월한 세계의 모든 교회를 가리킴)가 우리를 신뢰할 만한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는 방식으로 교회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한다.

월드비전과 교회가 서로를 관계를 만들 때, 가난한 사람들이 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어린이들은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출처, Strengthening Our Bridges, p.4-6 /번역, 김희수

선교를 위한 동역

우리 월드비전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와 교회의 파트너 입니다. 우리는 교회와의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교회에 주고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면서, 교회들이 월드비전과 교회의 공동선교에 참여케 합니다 (롬 12:2).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특권을 귀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바칩니다. (고후 8:1-16).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낮은 사람들(marginalized)에게 특별히 신경쓰셨음을 (마 18:1-6; 25:34-36)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 65:19-23), 예수님과 함께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낮은 사람들을 특별히 돌봅니다.

- 출처 : Christian Commitments Statement 2004

예수 그리스도 증거

Witness to Jesus Christ

World Vision

1. 사명완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증거

월드비전이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월드비전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변화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월드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합니다.

2. 사역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증거

예수 그리스도 증거는 곧 변화의 시작이요, 가난과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며,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월드비전은 언종, 종교, 이념 등의 벽을 넘어 가난과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 섬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합니다. 월드비전은 직원들의 삶으로(by life), 행동으로(by deed), 말로(by word) 그리고 표적으로(by sign)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합니다.

월드비전의 직원들은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삶으로써, 섬김과 정의와 자비의 행동으로써, 대화나 간증이나 중재에서 하게 되는 말로써,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통전적으로 증거 하기 위한 구성요소

삶(LIFE)

● 직원은 공직으로나 사적으로 거룩한 삶(holy life, 경건)을 영위한다.
● 직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 직원은 교회에 (예배나 사역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 직원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일상의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한다.

● 직원은, 공식적으로 기도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 공식적으로 기도한다.
● 직원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한다.

World Vision

말(WORD)

● 직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직원은 기회가 오면 언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눈다.
● 직원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자질(quality)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 직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직원은 기회가 오면 언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눈다.
● 직원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자질(quality)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직원은 경영과 든 조직,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는 관습들을 정기적으로 분석한다.
● 직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직원은 기회가 오면 언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눈다.
● 직원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자질(quality)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모든 월드비전의 사업은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므로 월드비전의 모든 사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동과 성품을 바라보게 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져야 한다.

행동(DEED)

● 직원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산다.
● 직원은 자기들이 담당하는 지역의 규범들과 관습들을 배우고, 그리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성경과 관계시킬 수 있다.
● 직원은 반드시 월드비전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자신의 사역(work) 및 삶(life)의 전 측면을 통해 표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므로 직원은 최고수준의 사역과 윤리적인 행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우리가 사역에서 사용하는 도구들, 방법들 그리고 테크닉들은 월드비전의 핵심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 직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종시키는 일에 개입하지 않고 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지 않아야 한다.

표적(SIGN)

● 직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 지역사회 속에서 매일 만들어 가는 활동들은 하나님의 활동을 높이고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사용되어져 한다.

4.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하는 이유
Why we must witness?

by Bryant L. Myers <Walking with The Poor>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하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증인(witness)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하자면, 기독교 신앙이란 선교적 신앙(a missionary faith)이다. '복음'(Gospel)은 '메시지'(message)나 '좋은 소식'(good news)을 의미한다. 전해지지 않는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다. '복음전도'(evangelism)란 말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Lord)와 구주(Saviour)로 영접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삶의 모든 면으로 그리고 가용한 모든 수단 - 삶, 행동, 말, 그리고 표적 - 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리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하는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할 필요성은 그리스도인의 '변화'(transformation)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belief)이란 앎(knowing)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아타나시오스(Athanasius; Alexandria의 대주교로 Arianism 교의의 반대자; 295?-373)는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Beginning)을 제공 한다"고 말했다. 히포(Hippo)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은,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는 격언을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전 사고방식을 철저히 재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간주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 증거는 곧 변화의 시작이 된다. 멜바 매가이(Melba Maggay)는 "사회적 변화는 제일 먼저 성령만이 접근할 수 있는 차원에서 - 역주, 사람의 영 -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켜 준다.

선교신학자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그것을 좀더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복음(good news)을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우리는 정체성과 소명(vocation-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World Vision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최상의 것을 가져와야 한다. 가장 좋은 시기에 개발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개발사업의 과정은 더욱 힘들 양게 되고, 그 개발사업의 기술도 말미암아 오염된 물, 기생충, 영양실조, 그리고 처조한 농산물 생산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식'(the best news)은 아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그리스도는 찾고 구원하며 살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곧 가장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셋째로, 예수는 우리에게 단지 두 계명만을 주셨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이유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그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적인 삶을 지금 당장 개선시키주는 것으로 제한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현 이념의 영원히 변화시켜 준다는 약속을 지닌 복음을 결코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월드비전의 영력 유산

World Vision

월드비전국제본부의 3대 총재이셨고 월드비전 '기도의 날'(Day of Prayer)을 제정하신 테드 엥스트롬(Rev. Dr. Ted Engstrom)은 "우리의 유산은 무엇인가?"(What is our Legacy?)란 제목의 강연에서 월드비전의 유산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무엇인가

- 테드 엥스트롬 (Ted Engstrom)

지난주에 월드비전의 거목이셨던 딕 할버슨(Dick Halverson) 이사장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큰 충격 속에서 그 동안 월드비전의 선구자들을 추억(追憶)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산은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 증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월드비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마음에 두신 주요 임무는 세상 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월드비전의 개척자이신 밥 피얼스(Bob Pierce) 박사님을 비롯하여 월드비전의 개척자들 - 폴 리스(Paul Rees) 박사, 스탄 무니헴(Stan Mooneyham) 전총재, 그리고 딘 허쉬(Dean Hirsch) 총재 - 은 모두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밥 피얼스 박사님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는 먼저 복음전도자이셨고, 다음으로는 기독교 박애주의자이셨습니다. 저에게 영적 영웅이요 모델이셨던 폴 리스 박사님은 목회자로서 순회복음전도사역을 해오신 복음전도자이셨습니다. 스탄 무니헴 박사도 권장한 설교가이셨는데, 그 시대에 무니헴만큼 효과적으로 복음을 설교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불타는 열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나는 딘 허쉬 총재와 월드비전의 지도자들이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유산이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두 번째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타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World Vision

예수님께서는 애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근거를 빼앗기고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월드비전의 선구자들은 모두가 긍휼이 풍성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긍휼로 싸매 주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세상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을 싸매어 주는 것이 바로 월드비전의 유산입니다.

지금도 생계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이 무시를 당하고, 굶주림과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밥 피얼스 박사님은 그런 어린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비전이 시작된 동기였습니다.

세 번째 유산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에 흠뻑 젖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에 흠뻑 젖은 채로 해야 합니다. 우리를 앞서 가셨던 월드비전의 선구자들은 언제나 '기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사역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도에 흠뻑 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기도에 흠뻑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전 로스앤젤스 컨벤션센터에서 기도 사역자 조 롭(John Robb)을 만났습니다. 그 곳에서는 큰 기도회가 열려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3,50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36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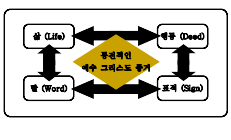
나는 밥 피얼스 박사님과 함께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피얼스 박사님만큼 긍휼이 풍성한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피얼스 박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사역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울었고, 그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에게도 흠과 약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얼스 박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제 마음도 상하게 하옵소서!"(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라는 기도문을 자신의 성경책 앞 면지에다 적어놓았었습니다. 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아프리카의 결연아동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사진에는 피얼스 박사님이 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제 마음도 상하게 하옵소서!"란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사진을 바라보며 "주님, 저로 하여금 피얼스 박사님이 드렸던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비전이 받은 유산입니다.

World Vision

저는 월드비전의 유산으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유산은 복음을 전하여 구주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산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산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에 흠뻑 젖은 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유산을 간직할 뿐 아니라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변화는 통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통해 일어난다.



통전적인 선교를 보여주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

	(사업과 매수 그리스도 증거 사역의 질은 직원들의 질과 비례한다	(월드비전의 활동들) TD MED ERDM Food GIK HIV/AIDS Communication Marketing	교회는 무엇을 했어고 말하나?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방보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방적인 태도 4.성령의 능력 5.초자연적 장에 대한 기대	활동과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응답은 어떤 모습일까?

1950 - 2010
60s Anniversary
WORLD VISION
KOREA

월드비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전　　화 : (02) 2078-7000
홈페이지 : www.worldvision.or.kr